

전일동향

전일대비 4.30원 상승한 1,483.30원에 마감

3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4.30원 상승한 1,483.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50원 상승한 1,486.5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에는 국제유가 반등으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 강화와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을 소화하며 양방향 수급장을 이어갔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4.34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86.50	1488.00	1481.50	1483.30	1484.80
	엔화	947.13	953.84	942.73	944.34	-
	유로화	1739.96	1748.21	1737.38	1738.19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08	-3.85	-8.38	-15.75
	결제환율(수입)	-0.62	-2.56	-6.13	-12.0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국발 기술주 위험선호 회복에...1,47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83.30) 대비 10.95원 하락한 1,471.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감과 미국발 기술주 위험선호 회복으로 하락 전망한다. 이란이 미국에 새로운 휴전안을 전달한 뒤 미국은 해당 제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금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호르무즈 해협 고립 선박 구조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미국 증시가 휴전 협상 불확실성에도 기업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랠리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일 환율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지부진한 협상 전개 양상과 저점인식에 기반한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은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66.67 ~ 1476.67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4559.3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95원 ↓
	■ 美 다우지수 : 49652.14, +790.33p(+1.6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47.0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414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